

한반도의 지정학적 재발견에 근거한 동아시아 중추국가 전략이 필요

- 동북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십자로에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
 - 대서양 시대에 동북아는 지리적으로 변방에 머물러 있었지만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전하면서 동북아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가 되고 있음
- 한국은 이러한 동북아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
 -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랜드브리지(Land Bridge)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인 유라시아와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을 결합시켜주고 있음
- 지금부터 우리는 반도라는 지정학적 조건이 과거 우리에게 안겨준 기회와 제약을 점검하고,
- 탈냉전, 세계화, 정보화로 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제약이 어떻게 기회로 변모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며,
- 동아시아 중추국가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핵심 국가정책 과제를 실현시켜 나가야 함

1. 한반도의 지정학적 재발견과 경영의 중요성

- 지난 천 년간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마주치는 접점
 - 대륙세력인 중국은 해양으로 헤게모니를 확장하기 위한 교두보로 한반도를 이용하려 했고, 해양세력인 일본은 한반도를 중국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‘다리’로 이용하려 함
- 지정학적으로 반도는 제약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음
 - 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패권확장을 위한 교두보와 길목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과 물자와 문화가 모여서 흩어지는 ‘중추’(hub)도 될 수 있음

- 반도가 지정학적 기회가 되느냐 제약이 되느냐는 반도의 경영능력에 달려 있음
 - 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각축장이 되기 쉬움
 - 그러나 반도라는 지정학적 가치를 잘 활용하면 대륙의 장점과 해양의 이점을 동시에 살릴 수 있음
 - 반도를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가는 관문, 해양과 대륙을 이어주는 가교로 인식하면 많은 기회의 창이 열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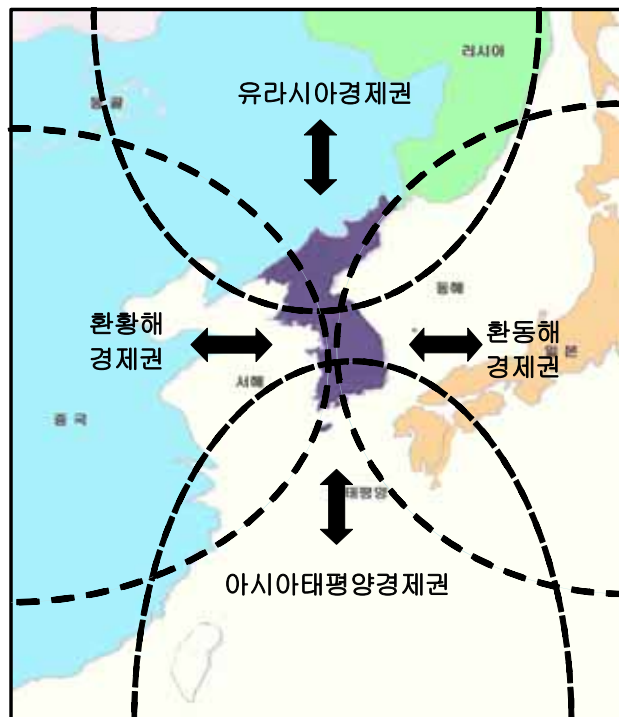
- 냉전 시대에 남과 북에 분단국가가 형성된 이후 전개된 남과 북의 반도경영은 대조적이었음
 - 남한의 경우 3면이 바다인 반도의 이점을 활용하여 수출입국을 이룩하였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음
 - 반면에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주의를 고집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대륙의 사회주의 대국 인접국으로서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했고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
- 국제적 냉전체제가 해체되고, 세계화와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은 변방에서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,
 - 과거에 고통을 안겨주었던 반도라는 지정학적 숙명은 이제 동아시아의 중추로 올라

서기 위한 지정학적 자산으로 변모함

- 일본과 러시아, 황해의 중국과 연결, 한국은 중국, 일본, 러시아, 북미, 동남아를 사통팔달 연결시킬 수 있는 동아시아의 십자로가 됨

- 한반도를 중심으로 반경 1,200km 안에 7억 명의 인구와 6조 달러의 GNP를 가진 거대한 시장이 존재
- 동북아는 2010년에 이르면 전 세계 교역액 가운데 30%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
- 동북아 5대 도시(서울, 도쿄, 베이징, 상하이, 블라디보스토크) 중 서울이 다른 도시에 최단 거리로 최단 시간에 접근

[그림] 한반도의 지정학적 잠재력: 4개의 큰 활모양 경제권의 중추기지 가능성



자료: 박양호, 한반도의 지정학적 잠재력 구상(개인지도자료), 2007. 7. 7

- 탈냉전은 한반도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패권 각축장이 아니라 대륙세력인 중국과 해양세력인 일본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매개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

- 문화적으로 한반도는 동아시아에서 기독교, 유교, 불교문화가 화해하고 공존하는 진원지 가능: 한국은 여러 종교의 활동이 왕성하면서도 다양한 종교가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나라

2. 동아시아 중추국가 전략

● 왜 중추(中樞)국가인가?

- ‘중추국가’가 반도국가인 한국의 국가전략이 되어야 함
 - 중추국가(hub state)는 사람, 물자, 문화가 ‘모여서 전파되는’ 국가를 의미하며, ‘중추와 부챗살’(hub and spokes)로 이루어진 세계에서의 중추: 동아시아 중추국가란 동아시아의 정치, 경제, 물류, 문화, 교육이 모이고 전파되고 확산되는 국가를 의미
 - 중추국가는 ‘세계의 사람과 물자가 모여서 나가는 국가’라는 의미를 지닌 동태적이고 평화적인 교류국가, 연결국가, 관문국가(gateway state)의 개념

● 북한의 편입을 통한 동북아 중추-부챗살 망의 완성

-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추가 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중추-부챗살 망(hub and spokes)의 결손부분인 북한이 중추와 부챗살 망에 들어와야 함
 - 무엇보다도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금 북한을 중추-부챗살 망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재개되어야 할 것임

● 철의 실크로드

- 북한을 중추와 부챗살 망에 편입시키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는 남북 간 경의선, 동해선 철도를 연결하여 남북한 종단철도를 복원하고 이를 TSR(시베리아 횡단 철도), TCR(중국횡단철도), TMGR(몽골리아횡단철도) 등의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망과 연결시켜 ‘철의 실크로드’를 완성하는 것임

- 철의 실크로드가 열리면 한반도는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중추가 될 것이고 한국은 아시아 대륙 동쪽 끝(극동)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될 것임
- 북한이 누릴 수 있는 이득도 매우 클 것임: 단기적으로는 태평양에서 대륙으로 가는 물자의 운송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이고, 중장기적으로는 부산-서울-개성-평양-신의주로 연결되는 ‘한반도 경제대동맥’이 복원되고 남북경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임

● 동북아 에너지공동체: 국제적 ‘이익공동체’

- 북한을 중추와 부채살 망에 편입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핵심 프로젝트는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의 형성임
 - 유럽이 철, 석탄 공동체라는 에너지 공동체를 기반으로 기능주의적 유럽통합을 달성한 데서 교훈을 얻어 우리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고리로 하여 미, 중, 일, 러, 남, 북이 ‘이익공동체’(interest community)를 구축해야 함
 - 핵심적 이익의 공유를 담보로 하여 한반도의 평화의 구축과 유지에 동북아 모든 나라들이 이익을 같이하는 ‘평화이익’(peace interests)을 창출해내고,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평화공동체(peace community)를 건설해야 함
 - 북한의 경제위기의 핵심은 에너지난이므로, 사할린가스 프로젝트는 가스 운송관을 통해 북한을 중추와 부채살 망에 편입시켜 한반도를 동아시아의 평화의 중추로 만드는 프로젝트로 가능

●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

- 한국이 동아시아의 중추국가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주변국과의 중추와 부채살 망의 구축에서 나아가 한민족 내부에 중추와 부채살 망을 만드는 것이 필요
 - 남북한과 해외의 모든 한민족 구성원들을 연결하여 ‘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’를 건설해야 함

- 아시아와 태평양 그리고 세계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한민족 구성원들을 광범위하게 연결하면 공동의 유대와 귀속감을 발전시키고 문화적, 경제적 교류의 증진이 가능함
- 한민족은 세계 173개국에 약 634만 명이 골고루 흩어져 살고 있는 대표적인 디아스포라 민족이므로 화교경제권에 못지않은 한민족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음
- 한국이 갖고 있는 IT는 국경의 장벽에 의해 차단되어온 해외 한민족과 한국을 연결, 소통, 교류, 교환을 가능하게 해줄 것임: 탈영토적이고 탈국가적 정보네트워크 구축 가능

● 한반도 공간구조의 재편성: 개방형 국토구조로의 전환

- 동아시아 중추국가로 개조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중추와 부챗살 망에 편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한반도 공간구조의 재편성도 필요
 - 한반도 공간 재편성은 반도가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, 지경학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‘개방형 다극혁신 국토구조’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
 - 개방형 다극혁신 국토구조로의 전환은 한반도 전역을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열려 있는 세계화의 공간으로 개방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임
 - 나아가 한반도가 동북아의 평화, 물류, 경제, 문화의 중추로 부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임
 - 따라서 개방형 다극적인 국토구조로의 개편은 한반도가 동아시아 중추국가로 변신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인식해야 함

● 필자: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임혁백 교수, 좋은 정책 포럼 공동대표
(02-3290-2191, hyugim@korea.ac.kr)

※ 이번호는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월간 『국토』 2007년 2월호 특집 중 고려대학교 임혁백 교수의 “한반도의 지정학적 재발견과 동아시아 중추국가 전략” 내용을 발췌·요약하고, 2007. 7. 20. 경주 山水堂에서 개최된 『좋은 정책 포럼 여름 워크숍』에서 논의된 사항을 일부 반영하였음